

제 5 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한문 I)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는 것은? [1점]



교사: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의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지원: 흰 눈 덮인 겨울 산속에 초가집이 있네요.
 유림: 나뭇가지가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요. 눈바람이 휘몰아치나 봐요.
 주한: 나그네와 동자가 눈길을 지나는데, 검둥개가 사립문 앞에서 짖고 있고요.
 교사: 그래요. 눈바람 몰아치는 밤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죠. 그래서 위쪽에 '風雪夜(㉠)人'이라고 써 놓았답니다.

- ① 婦 ② 慢 ③ 掃 ④ 停 ⑤ 歸

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 [1점]



- ① 分 ② 立 ③ 今 ④ 介 ⑤ 化

3.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ㄱ. 安 - 危	ㄴ. 到 - 達
ㄷ. 省 - 察	ㄹ. 深 - 淺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과 ㉡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 [1점]



- ㉠ ㉡ ㉠ ㉡ ㉠ ㉡
- ① 호 수 ② 호 계 ③ 호 리
 ④ 여 수 ⑤ 여 계

5.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 ① 角逐 ② 頭緒 ③ 首相 ④ 頭角 ⑤ 優越

6.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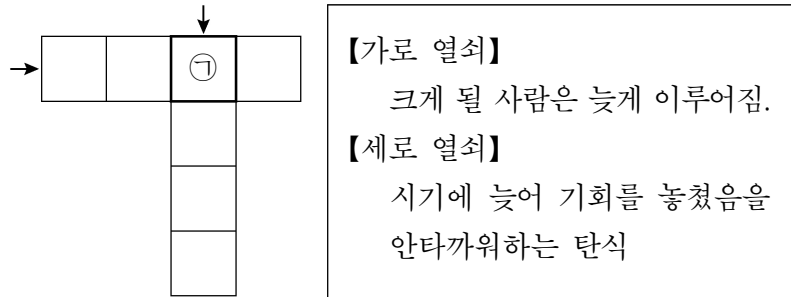
- ① 特 ② 待 ③ 時 ④ 得 ⑤ 代

7.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8.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에 들어갈 것은?



- ① 晚 ② 期 ③ 失 ④ 滿 ⑤ 歎

9.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 ① 작년 한 해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
- ② 그분의 도움을 지금껏 잊을 수가 없어.
- ③ 친척끼리 어쩔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 ④ 저 두 사람은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 ⑤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10.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

作其始者, 當任其終.

- 『순오지』 -

- ① 首丘初心 ② 日就月將 ③ 一騎當千
- ④ 結者解之 ⑤ 自初至終

11. 광고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 ① 鳥久止, 必帶矢.
- ② 人飢三日, 無計不出.
- ③ 久而不已, 則必至于有成.
- ④ 官怠於有成, 病加於小愈.
- ⑤ 三日之程, 一日往, 十日臥.

12.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 ① 陰地轉, 陽地變.
- ② 患生於所忽, 禍發於細微.
- ③ 記人之功, 忘人之過.
- ④ 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 ⑤ 鏡不自照, 智不自料.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父母, 養其子而不教, 是不愛其子也, 雖(㉠)而不嚴, 是亦不愛其子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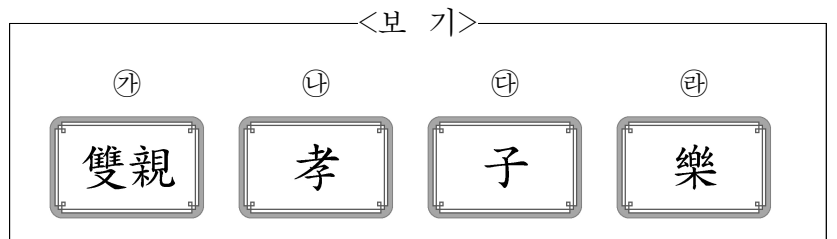
- 『고문진보』 -

- ① 效 ② 憎 ③ 修 ④ 勞 ⑤ 教

14. ㉠에 들어갈 것을 <보기>의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 家和萬事成.

- 『명심보감』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5.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 『노자』 -

- ① 千里之行, 始於足下.
② 不幸由己, 何不自反.
③ 寬而見畏, 嚴而見愛.
④ 知是行之始, 行是知之成.
⑤ 陷之死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存.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肱(굉): 팔뚝 - 『논어』 -

16. ○과 짜임이 같은 것은?

- ① 霜降 ② 貴賓 ③ 登頂 ④ 遵法 ⑤ 希望

17. 윗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

- ① 安貧樂道 ② 自強不息 ③ 先見之明
④ 上善若水 ⑤ 望雲之情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王之諸子, 與諸臣, 將謀害之. 蒙母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略, 何往不可? 宜速圖之.” 於是, 蒙與烏伊等三人爲友, 行至淹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 魚鼈成橋, ○得渡而橋解, 追騎不得渡. 至卒本州, 遂都焉. *烏伊(오이): 사람 이름 *淹水(엄수): 강 이름 *遁(둔): 달아나다 *鼈(별): 자라 - 『삼국유사』 -

18.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지혜 ② 지략 ③ 계략 ④ 재략 ⑤ 재능

19.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 ① 得 ② 渡 ③ 而 ④ 橋 ⑤ 解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다.
② 주인공의 고귀한 신분이 나타나 있다.
③ 주인공을 구원하는 존재가 나타나 있다.
④ 주인공이 민심을 얻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⑤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命判三司事鄭道傳, 名新宮諸殿. 道傳撰名, 并○書所撰之義以進. …(중략)… 其勤政殿勤政門, 曰: “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중략)… 先儒曰: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此人君之勤也. 又曰: ‘勤於求○賢, 逸於任賢.’ 臣請以是爲獻.” *鄭道傳(정도전): 사람 이름 *撰(찬): 짓다 *并(병): 아울러 - 『태조실록』 -

21. ○~㉔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기록하다 ② ㉒: 이치 ③ ㉔: 오히려
④ ㉑: 조정 ⑤ ㉓: 현인

22.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재의 조건 ② 신하의 도리
③ 정사를 돌보는 순서 ④ 인재 등용의 방법
⑤ 전각 이름에 담긴 의미

23.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것은?

원수로다 원수로다 백발이 원수로다 오는 백발 막으려고
우수(右手)에 도끼 들고 좌수(左手)에 가지 들고
오는 백발 뿌드리며 가는 홍안(紅顏) 걸어 당겨
청사(靑絲)로 결박하여 단단히 줄라매되
가는 홍안 절로 가고 백발은 시시로 돌아와
귀밀에 살 잡히고 검은 머리 백발되니
○(이)라 무정한 게 세월이라
소년 행락(行樂) 깊은들 왕왕이 달라가니 이 아니 광음인가 - 『얼너춘향수절가』 -



- ① 風雨當年不盡吹 ② 獨愛寒松歲暮青
③ 朝如靑絲暮成雪 ④ 夜半鐘聲到客船
⑤ 月白風清興有餘

[24~2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然.
 今春看又過, (㉡).

* 逾(유): 더욱
 - 두보, 「절구(絶句)」-

(나) 江山이 때를 만나 푸른빛이 새로우니
 물가엔 새 더 희고 山에 핀 꽃 불이 붙네
 올봄도 그냥 지날사 돌아언제 갈거나

24. (나)는 (가)를 시조 형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는?

- ① 煙 ② 燃 ③ 燕 ④ 熟 ⑤ 煩

25. (나)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시구는? [1점]

- ① 何日是歸年 ② 驅車登古原
 ③ 遠客思歸切 ④ 落日見歸雲
 ⑤ 月明愛無眠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一國之事, 當與一國人, 共治, 不可[㉠]與一二私人, 從欲而治. 取一國公論所[㉡]指望之人, 任官[㉢]責成, 卽與國人共治也. 公論, 乃國人共[㉣]推之論, 非公論, 何以會合國人之心也? 國人之所願, 必從, 所不願, 亦從, 所欲, 必[㉤]從, 所不欲, 亦從, 雖欲不[㉥]治, 得乎?

- 『인정』 -

26. ㉠과 쓰임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ㄴ.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ㄷ. 與損者處, 則名自卑, 而身自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 지휘하다 ② ㉢: 꾸짖다
 ③ ㉣: 추측하다 ④ ㉤: 놓다
 ⑤ ㉥: 다스려지다

28. 윗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 ① 放心 ② 獨斷 ③ 寡慾 ④ 論爭 ⑤ 盲從

[29~3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江月圓還缺, 庭梅落又開.
 逢春歸未得, ㉠獨上望鄉臺.
 - 임억령, 「송백광훈환향(送白光勳還鄉)」-

2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ㄴ. 시의 운자(韻字)는 ‘開’, ‘臺’이다.
 ㄷ. 둘째 구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ㄹ. 셋째 구는 ‘逢春歸/未得’으로 띄어 읽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0. 시적 화자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